



# 책의 맛

배곧해솔중학교  
도서관 소식지  
제15호 2022년 10월

발행처: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화로 150-23 배곧해솔중학교 도서관 031-8063-1881

가난한 자는 책으로 부자가 되고, 부유한 자는 책으로 귀하게 된다.

貧者因書富 富者因書貴

- 왕안석

## ◆ 도서관 이용 안내

- 이용시간

평일 8:40 ~ 16:40

- 도서관에서 열람 가능!

- 대출 및 반납

2권 30일

※ 거리두기 완화 후 변경 될 수 있음

## ◆ 11월 도서관 전시 프로그램 안내



「빈 공장의 기타 소리」 원화 전시

기간: 2022년 11월 8일 ~ 12월 30일

장소: 토론광장

일 자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로, 그림을 그리는 '나'와 공장 노동자들이 만나 서로에게 든든한 이웃이 되어가는 모습을 그렸다. 작가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맞서 일 자리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들과 10개월간 함께 지낸 경험을 토대로 이 그림을 그렸다.

주제: 노동, 인권

※12월 7일(예정) 해당 원화를 주제로 독서토론이 있습니다.  
11월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9월 독서의 달 프로그램 종료



<도서관에 떨어진 소포들>



<빙고판 만들기 결과>

도서관에서 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을

11112 양하은

저 높고 맑은 하늘을 보고 있으면  
내 기분 또한 저 하늘에 떠다니고  
한때 청량했던 초록색의 나무들도  
빨강 노랑 울긋불긋하게 단풍진다

지금 나는 저 구름일까 단풍일까

낙엽

20202 김가인

시원한 바람 맞아가며 한발 두발 나아가자  
사박사박 들려오네  
푸른하늘 바라보며 한발두발 내딛어보자  
사박사박 들려오네

하늘을 올려보니 하늘하늘 내려오는 잎들이,  
색색의 단풍이 퍼져 하늘을 덮고 있구나



◆ 시간을 건너는 집(이수, 자영)



30909 김희주



2018 서점대상 수상작!  
업도적 1위! 역대 서점대상 최고 득표



## <거울 속 외판 성>

츠지무라 미즈키 / RHK

30524 조아라

후에는 이곳에 올 수 없다는 규칙을 설명해 준다.

이 책은 각자 열쇠를 찾아가며 일어나는 일들을 담은 이야기이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당하는 아이들이 거울을 통과하여 들어간 성에서 나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만나고 안전지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상처를 치유받는 그런 이야기이며 재미를 주는 판타지 소설적인 요소와 더불어 청소년기 아이들이 갖는 외로움과 자존감의 상실을 다독여주는 감동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에 휴식이 필요한 친구들과 자신의 친구들로부터 거부당한다는 느낌을 받아 세상이 무너지고 혼자라고 느껴지는 외로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다면 츠지무라 미즈키의 <거울 속 외판 성>을 보여주고 싶어진다.

이 책을 본 사람들은 이 세상은 너 혼자만이 아니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건 바로 너면서 옆에서 항상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책의 내용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가기를 두려워하는 주인공은 어느 날 자신의 방에 있던 거울에서 빛이 나는 걸 발견한다.

주인공은 거울 속으로 들어가며 그 안에서 늑대 가면을 쓴 소녀와 자신과 같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6명의 아이들과 늑대 가면을 쓴 소녀를 만난다.

늑대 가면을 쓴 소녀가 말하길, 이곳에서 딱 한 명만이 소원의 열쇠를 찾아 소원을 빌 수 있고 5시 이후에는 이곳에 있으면 안되며 3월 30일 이



##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매트 헤이그 / 인플루엔셜

21109 김예원

주인공 노라는 현실 속의 우울, 방향 속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도착한 곳은 죽음이 아닌 생명과 죽음 그 사이의 공간,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였다. 노라는 그곳에서 자신이 다닌 학교의 사서인 엘렌 부인을 만나게 되고 선반의 초록색이 가득한 책들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해 그 삶을 겪을 수 있었다. 노라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를 통해 여러 삶을 겪고 느끼며 끝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게된다.

내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은 노라가 겪은

여러 삶 중에서의 한 부분인 노라가 훌륭하고 능력 있는 교수로서의 삶 이야기였다. 노라가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를 통해 겪은 다양한 삶 중에서 노라는 많은 직업도 되어보고 여러일들이 있었지만. 나는 노라가 교수로서의 삶을 사는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노라는 여러 유명한 대학을 오가며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고 당당한 말투로 강연, 연설을 하는 모습이 현실의 위축되어있는 노라와 상당히 대비되어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 기분도 이상하고 크게 와닿아 기억에 남는 장면인 것 같다. 그리고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를 통해 노라가 원하는 삶을 선택을 많이 하였는데, 분명 행복할 줄 알았던 좋을 줄 알았던 삶들이 막상 겪어보니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고 마냥 행복하지 않은 모습이 현실적이기도 했고 '마냥 행복한 존재하는, 완벽한 삶은 없구나.'라는 것이 확 와닿아 여운이 더욱 남는 작품이기도 했다. 내가 만약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를 통해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선택한 삶은 과연 만족스러울지 행복할지 궁금해지기도 하였다.

# <Snow Man>

21217 심예은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상치 못했던 강풍을 맞이했다. 미친 듯이 부는 바람이며 갑자기 수많은 알람이 오는 핸드폰이며 정신이 어질어질해졌다. 그저 이상하게도 머리까지 아파오기 시작한다. 그러다 픽, 하고 몸이 뒤로 넘어간다. 눈앞이 깜빡이더니 온통 까맣게 변했다.

눈을 떠보니 이상한 공간이었다. 묘하게 병원을 닮은 공간이었다. 아니, 오묘한 한기와 창문이 하나도 없다는 점만 빼면 병원 그 자체였다. 몸을 일으켜 세워 주변을 둘러볼수록 이상한 느낌이 강해져갔다. 어째서일까, 생각하다 뻗속까지 시릴 만큼 추운 공기가 옷 속으로 스며들었다. 계절이 겨울이긴 했으나 이렇게 몸이 달달 떨릴 정도로 한겨울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에어컨 바람이라 하기에는 에어컨 소리가 나질 않았다.

가만히 앉아있기에는 공기가 너무 차가웠다. 초겨울이라고 동복만 입은 게 실수였다. 분명 체육복에 외투를 걸쳤더라면 이것보단 나았으리라. 어찌 됐건,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없이 늦게 들어간다면 분명 걱정할 것이다. 어디서 떨어트린건지 내 핸드폰도 안 보여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해졌다.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누워있던 침대 옆에서 가방을 챙겨 이 공간처럼 새하얀 미닫이문을 열었다.

문은 너무나도 매끄럽게 열렸다. 대충 어깨에 걸쳤던 가방을 고쳐매고, 신발 끈도 짝 동여매고, 호흡을 크게 한번 한 뒤에 문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문을 나오니 병원 같은 복도가 쭉 이어졌다. 내가 있던 방 옆에는 그 방과 똑같은 방 몇 개가 더 있었다. 아마 호실을 뜻하는 것 같은 번호도 새겨져있었다. 여긴 정말 병원인 것 같았다. 이 정도면 병원이라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돌아다니다 15분 만에 두 남자를 발견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표정, 흰색과 밝은 회색 뿐인 옷, 창백한 피부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과 인간의 표정을 흉내 내는 안드로이드 같은 얼굴의 사람이었다. 이 사람도 하얀색과 밝은 회색으로 가득한 옷을 입고 있었다. 약간 다른 점이라면 중간중간 검은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것 뿐이었다. 인간을 흉내낸 안드로이드 같은 오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해 다가왔다.

"나와 있었네요?"

"네, 음, 안이 너무 추워서요. 아, 저, 제 핸드폰 보셨나요?"

"핸드폰이요... 아, 음... 수이야, 주문 거 있니?"

"없어."

"아 이런, 음... 우선 아까 그 방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을래요? 잠깐이면 돼요."

미묘하게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핸드폰이란 말을 꺼냈을 때 보인 당황스러움이나 가까이 갔을 때 느껴지는 한기나 수상한 것 투성이었다.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우선은 저들의 말을 따라보기로 했다. 머리가 너무 아팠다. 집에 가면 감기약부터 먹어야 할 것 같았다. 아까 왔던길로 되돌아가서 내가 깨어났던 침대에 걸터앉았다.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아까 그 남자와 닮은 여자가 들어왔다. 이 여자는 적어도 그 남자들보단 '사람'처럼 보였다. 여자는 옆에 있던 의자를 꺼내서 앉았다. 그러고선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허약해보이는 걸모습과는 다르게 악력이 강해서 뿌리치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붙들려있었다. 그러고보니 이 사람은 특별히 한기가 느껴지지는 않았다.

"지현양, 지금 상황이 낯설고 혹시 두렵지는 않나요? 아, 어떻게 이름을 알았냐는 얘기는 하지 말아요. 옷에 달린 명찰을 봤을 뿐이니까요."

"... 네. 알겠어요."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는 지현양의 행성, 아 아니, 차원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내가 이 언어를 익힌지 너무 오래돼서요. 우리 차원에서는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이라 매뉴얼이 있는데 지현

양은 이런 현상을 처음 보는 것 같네요. 빠른 시일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해보겠지만 그 차원과 이 차원의 거리가 멀거나 흐름이 다르면 돌아가기가 어려워서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차원이 다른 만큼 돌아갔을 때 찰나의 순간만 지나있을 수도 있고 몇 년이 흘러있을 수도 있어요."

"예...?"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별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 판타지 소설 같은 일인가. 다른 차원이라니. SF 같은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었나? 혼란스러워서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어버버거리느라 아무말도 못하고 있으니 두 사람이 내 눈치를 보며 쑥덕거리기 시작했다.

"저기요,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추워요...? 아까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주변에 있으면 더 춥던데..."

"네...? 아, 그걸 설명 안 해드렸군요. 여기는 다른 차원들에게 '스노우볼 차원'이라 불리는 곳이에요. 모든 날에 눈이 오고, '스노우맨'들이 살아가기 최적의 온도가 유지되죠. '스노우맨'은 이 차원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역시 지현양의 차원은 차원 간의 교류가 거의 없나보네요. 이 차원은 꽤나 유명한 관광 차원인데 말이죠."

"근데 그게 한기가 느껴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막 설명하려 했어요. '스노우맨'은 말 그대로 눈을 토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 눈사람인거죠. 살아 움직이는 눈사람. 그래서 지현양 같은 따뜻함이 남아있는 차원의 사람들은 가까이 가면 한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 세상에."

눈사람이 눈+사람인 건 아는데 정말 눈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뜻하는 줄은 몰랐네... 말을 계속 곱씹다보니 또 이상한 것이 느껴졌다.

"근데 저희 차원의 언어는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 '스노우맨'이 가까이 가면 한기가 느껴진었는데 왜 당신은 한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따뜻함이 남아있는 차원이라는 건 따뜻함이 없는 차원도 있나요? 그러고 보니까 당신이나 저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자, 잠깐만요...! 해석 좀 할게요. 그리고 질문은 되도록이면 한 번에 하나씩만 해주시겠어요? 후우... 좋아요, 이제 하나씩 대답해줄게요. 지현양의 차원에서도 아주 드물었을 뿐이지 차원을 넘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저에게서 한기가 느껴지지않는 이유는 저도 지현양처럼 다른 차원에서 이곳으로 넘어와서 그런거예요. 따뜻함이 없는 차원도 존재해요. 그리고, 음... 제 이름은... 지현양의 언어로 바꿔말하자면 바다, 겠네요. 저 스노우맨의 이름은 저도 몰라요. 저희는 교류를 그닥 안하고 살아서요."

바다는 열심히 내 질문에 모두 답해주었다. 덕분에 궁금했던 건 대부분 해소되었다. 사실 진짜 궁금한 건 내가 어쩌다, 왜, 어떻게 넘어왔는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뿐이지만 지금 물어봤자 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삼켰다. 바다의 반응을 보니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말을 더 하지 않자 바다와 다른 사람은 나에게 인사를 하고 방 밖으로 나갔다. 바다는 나갈 때 방에서 함부로 나오지 말라고 했다. 밖이 궁금하면 창문을 열어주겠다고 해서 열어달라고 했는데 방에서 달라진 건 없었다.

방 밖으로 나갈 수야 있겠지만 왜인지 그들을 믿어도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안좋은 상황에서는 요란하게 울리던 감이 잠전했다. 묘한 불안함이 뒷 목을 스치고 갔다.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을 때 문이 있던 벽의 반대편 벽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유리창으로 변했다. 창이 손잡이를 잡고 당기자 아주 서늘한 바람이 창문에서 들이닥쳤다. 나는 서둘러 창문을 닫았다. 적어도 이 창문은 가짜가 아닌 것 같았다. 이번에는 창문을 열지 않고 바깥은 내다보았다. 밖은 마치 '크리스마스'하면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었다. 2층짜리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반짝이는 알전구로 장식한 모습을 보니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눈도 소복이 쌓여있어서 정말 크리스마스같은 느낌이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티없이 새하얀 구름에서 함박눈이 펄펄 쏟아져내리고 있었다. 정말 스노우볼 같은 모습이다. '스노우볼 차원'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도 작명소를 차려도 될 것 같았다.

한참을 바깥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며 누가 또 들어왔다. 아까 초반에 본 '수이'라고 불린 남자였다.

"네 물건."

"어... 예, 감사합니다."

그는 내 핸드폰을 건네주고서 금세 나갔다. 여긴 아직도 적응이 되지 않은 것 같다. 다행히 핸드폰은 잘 작동되었다. 메신저나 전화는 되지 않았지만, 영상 공유 플랫폼이나 일부 OTT나 소셜 플랫폼은 볼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시계는 4시 27분을 나타내고 있었다. 내가 여기로 와지고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더 안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몇 일이 지났다. 내 핸드폰의 시계는 아직 5시도 되지 않았다.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데 바다가 문을 열고 뛰쳐들어왔다.

"지현양! 돌아갑시다!"

"드디어...!! 집 갈 수 있나요!!"

"이리 따라오세요!"

바다를 따라 이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몇 번 꺾으니 엘리베이터가 나타났다. 엘리베이터 옆에 표시된 층수 표시는 2층부터 13층까지 있었다. 왜 이런지 물어보니 1이 불길한 숫자라서 첫 층은 F층처럼 언어로 표시되어 있었다. 지하까지 세면 총 17층짜리 건물이었다. 여기는 9층으로 꽤 높은 층이었다.

땡- 소리를 내며 도착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4층으로 내려가니 엄청 커다란 알약같이 생긴 기계가 있었다. 바다가 무슨 버튼을 누르니까 바람빠지는 소리가 나며 뚜껑이 열렸다. 알약의 안은 엄청 폭신폭신했어 보이는 쿠션들로 가득 차있었다. 바다는 이 쿠션이 차원 이동의 충격을 줄여 줄거라 말해주었다. 맨몸으로 차원이동을 하면 까딱하면 바로 죽는거라나. 그런 의미에서 맨몸으로 차원 이동을 하고 살아있는 건 정말 기적같은 일이랬다. 차원태풍(바다가 지어준 이름이다. 차원 단위로 태풍이 부는 것처럼 불규칙한 곳에 강한 바람이 일고, 그 바람에 휩쓸리면 나처럼 차원이동을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랬다.)을 타고 왔대도 놀라운 일이라 했던가.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알약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했다. 나는 가방이 잘 닫혀있는지 확인하고 가방을 땀다. 긴장해서 심호흡을 크게 크게 하고 있으니 바다가 날 툭툭 치는것으로 신호를 줬다. 나는 신호를 받고 알약같은 기계 안으로 들어갔다.

쿠궁거리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닫혔다. 기계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얼마 후에 기계가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불안했지만 그래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 일단 얄전히 있었다. 진동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러다 머리에서 빼익거리는 이명이 들렸다. 또다시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니 나는 집에 가는 길에 서 있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5시 2분. 늦지 않았다. 걷기 시작하니 머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다. 이게 차원이동의 후유증인가. 그다지 심하진 않아서 집으로 후다닥 뛰어갔다.

엄마가 도착한 나를 보자 화들짝 놀라며 체온계를 가져왔다. 38.5도. 고열이었다. 머리 아픈 게 후유증이 아니라 아파서 그런 거였나보다. 어쨌거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 사실이 너무 좋았다. 엄마가 주는 약을 받아먹고 머리가 아프다며 침대로 달려가 누웠다. 집이야, 집. 내 안식처. 편해서 그런지, 낯선 곳에 있다 와서 그런지 잠은 아주 빠르게 찾아왔다. 그리고 꿈에서도 '스노우볼 차원'을 구경갔다. 가보지 못한 건물 밖의 세상을 탐험하는 꿈이었다.

어린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나는 내 차원여행표를 내려다보았다. 어쩌면 어린 날의 꿈은 예지몽이었을지도 모른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차원 간의 여행이 상용화되었다는 뉴스를 보자마자 '스노우볼 차원'을 떠올린 건 내 기억에서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기 때문일까. 부푼 마음을 안고 나는 '게이트'라는 이름이 붙은 상자 안으로 들어갔다. 바다가 날 기억하고 있을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내 목적지에서 내려왔다. 여전히 이곳은 눈으로 뒤덮여있었다.

저만치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큰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바다! 나 돌아왔어요!!"

다음 소식지도 기대해주세요~!